

여수 시내버스 노선 10년만에 개편

14개 노선 단축·경로 변경...3개 노선 신설·2개 폐지
굴곡노선 직선화·운행시간 단축...내일부터 본격 시행

여수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다. 2008년 이후 10년 만으로, 14개 노선이 단축되거나 경로가 변경되는 등 조정되고 신설 3개, 2개 노선이 폐지된다. 여수시는 지난달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시는 시민과의 대화, 민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자료 등을 토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14개 노선이 조정되고 생활권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이 신설된다. 2개 노선은 이용자 감소 및 중복 노선으로 감축, 폐지된다. 전체 노선 수는 59개에서 60개로 늘었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도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던 웅천·소호·죽림 지역 등 외곽 거주민들을 위해 1000번, 2000번 등 2개 순환노선을 신설, 주민 편의를 높였다. 그동안 빙 돌아 운행했던 80·81번 노선과 90·92·95번의 경우 노선 길이를 단축, 운행시간이 줄어들게 됐다. 마을 이주로

이용객이 감소한 52번이 폐지됐고 666번과 신월동~버스터미널~송소 구간을 중복 운행하던 18번도 없어졌다. 666번은 18번 대신 여수시청까지 증차·운행된다. 37번 노선은 도로 개설로 생긴 반월마을과 무선~여천초 구간 신설도로를 경유도록 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을 감안한 조치다. 또 68, 76, 91번도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주삼동 월암마을과 동문동 교육지원청을 경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999번 노선은 오전에는 돌산 봉수·둔전에서 시내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오후에 여천 순환노선으로 변경된다. 여수시는 생활권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시민 편의를 고려해 굴곡 노선을 직선화,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등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또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기존 여수 서시청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말 용역을 거쳐 대순환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구분	노선번호	내용	비고
신설 (3개)	1000번, 2000번	▶여천순환노선 신설 신월~웅천~시청~소호~죽림~무선	
	62번	▶52번 폐지에 따른 대체노선 신설 미명~신월~웅천~흥곡사~모도	
폐지 (2개)	18번, 52번	▶대체노선으로 전환(666번, 62번)	
	666번	▶18번 폐지에 따른 증차 및 노선연장	
조정 (14개)	88번	▶감차 및 경유지 변경(상하행 동일운행)	
	68번, 76번	▶월암마을, 교육지원청 경유	
	90번, 92번, 95번	▶죽림지구 미경유	노선 직선화
	91번	▶소라민사루, 해지마을 경유	
	37번	▶반월, 무선~여천초고 신설도로 구간 경유	
	80번, 81번	▶여천시외버스정류장 미경유 ▶여천순환노선(1000번, 2000번) 대체	노선 직선화
	2번, 777번	▶운행횟수 감편	운행시간 단축
	999번	▶등교버스 전환	시내노선 탈락운행



“세계적 음악도시 만들자”
여수 출신 음악가들
고향 위해 공연 선사

18~22일 예술마루서
여수국제음악제 & 앙상블
김소진·이얼씨 등 30명 재능기부

여수출신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고향 여수를 위한 공연을 펼친다. ‘2017 여수국제음악제 & 앙상블’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열린다.

범민문화재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여수 출신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공연료도 없이 출연한다. 연주·감독·지휘까지 맡아 공연을 펼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여수를 잘츠부르크같은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매년 8월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을 여수로 초청, ‘여수 썸머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예술감독은 여수출신으로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뒤 하노비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는 김소진씨가 맡았다. 여수 여도학교 출신으로 커티스·줄리어드·맨하탄 음대를 거쳐 캐나다 토론토 심포니 상주지휘자로 활동하는 이얼씨는 앙상블 상임지휘를 책임진다. 공연에 참가하는 아티스트도 5일 동안 30여명에 이르며 모두 ‘노 개런티’로 재능기부 공연을 펼친다. 시벨리우스 국제바이올린콩쿠르에서 우승한 크리스텔 리를 비롯, 독일 하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 김나현, 최한나, 정겨운, 이수은이 참여하며 홍콩 필하모니 수석비올리스트 앤드류 링,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 비올리스트 데이비드 토마스나우, 클래식 앙상블 부대표 이신규 등이 비올라 연주자로 나선다. 공연은 ▲음악과 함께하는 짧은 세계여행 ▲영 아티스트 클래식 ▲여수국제음악제 앙상블 등의 테마로 진행된다. 특히 영 아티스트 클래식이 펼쳐지는 19일에는 여수 출신 떠오르는 유학파 연주자 8명이 출연하고 김소진도 특별 출연, 현악 4중주 공연을 펼치고 줄리어드와 예일대를 거친 피아니스트 윤연준도 무대에 오른다. 정희선 여수범민문화재단 부이사장은 “지역 출신 음악가들이 고향을 잘츠부르크같은 국제적인 음악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여수 썸머 오케스트라’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별빛이 내린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성료

‘2017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20여만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며 막을 내렸다. ‘제 2회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해상에서 ‘여수의 밤’그리고 ‘별’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첫날 불꽃쇼는 취소됐지만 이튿날에는 국내외 14개 음악에 맞춰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으로 장관을 이뤘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여수밤바다를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제공>

‘음악과 함께하는 낭만이야기’ 22일 25가족 선착순 모집
여수시는 오는 22일 오후 6시 웅천 예술마루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가족 낭만이야기’를 연다. 25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 ‘여수 국제음악제 앙상블’ 공연을 함께 관람하면서 가족 간 친밀감을 다지면서 감미로운 음악으로 여름 밤 무더위를 식히자는 취지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